

文史哲 융합 ... 그림은 글처럼 글은 그림처럼

컬처 & 피플

화가 김병중



서울대 교수, 베스트셀러 작가, 화가, 인문학자... 남원 출신 김병중(61) 화백을 지칭하는 직함의 무게는 만만치 않다. 그는 문사철(文史哲)을 겸비한 한국화가, 융합형 예술가다.

그를 말할 때 글, 그림, 사유, 신앙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다.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둘 수 없을 만큼, 네 개의 영역은 정교하게 얽혀 있다. 한마디로 그는 매우 다면적이며 중층적인 '선비'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문인화를 그리는 조선 선비가 오늘날에 실재한다면 아마도 김 교수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서구의 개념에 빗댄다면 르네상스적인 인간의 전형이 바로 그다.

최근에 서울 팔레소호텔에서 김 화백을 만났다. 그는 전형적인 호남형의 인상이었다. 그에게선 인문적 향기와 예술가의 아우라가 배어 나왔다.

"시골 출신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뒷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저를 만든 건 팔 할이 바로 촌놈 특유의 뒷심일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 저는 미술계에서 소외받고 자꾸만 문학 속으로 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았던 건 다름 아닌 서울로 올라오던 날의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오직 그림을 그리겠다는 일념으로 신세벽 완행을 타고 떠나오던 날의 장면이 뇌리를 스쳤거든요."

그는 유독 유년의 체험과 기억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의 체험은 그의 영혼을 살찌웠고 예술을 풍요롭게 했다. 피폐와 결핍으로 점철되었던 유년의 기억이 창조적 세계를 떠받드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건 이 때문이다.

그것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는 기적과도 같다. 그의 말은 혹여 어렵다거나 고난에 처해 있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위축돼 있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다.

'생명' '회첩기행' 시리즈 전북 남원의 유년시절 체험이 색채·이미지·문자로 발현

그의 '회첩기행' 시리즈는 일반 사람들에게 오늘 그를 각인시킨 명작이다. 인문정신과 예술혼이 씨줄과 날줄로 아름답게 수놓인 산문이라는 평은 일련의 '주례사 평'과 '아내와 제 글은 색깔이 명백하게 다릅니다'라는 문체도 매우 차갑고 분석적이죠. 그에 비해 저는 자연주의, 인간주의에 근거한 따뜻한 글쓰기를 선호합니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 그리고, 쓰고, 묵상할 계획이다. 남들은 이쯤하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는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로 가슴이 고동쳐 온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만큼 가볍다. 올해도 전시회가 계획되고 있고, 책도 계속 낼 참이다.

그의 영광은 늘 색채와 이미지로 구체화되고 언어라는 문자로 발현된다. 굳이 어느 영역이 선(先)이고 후(後)인지, 주(主)이며 부(副)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글과 그림은, 그림과 글은 더러는 한데 뒤섞이고 더러는 따로따로 표현된다. 마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탱크'를 자극했을 때, 손서와 무관하게 창조성이 발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의 '회첩기행' 시리즈는 일반 사람들에게 오늘 그를 각인시킨 명작이다. 인문정신과 예술혼이 씨줄과 날줄로 아름답게 수놓인 산문이라는 평은 일련의 '주례사 평'과 '아내와 제 글은 색깔이 명백하게 다릅니다'라는 문체도 매우 차갑고 분석적이죠. 그에 비해 저는 자연주의, 인간주의에 근거한 따뜻한 글쓰기를 선호합니다."

아니라 싫어요."

김 화백의 글이나 미술 작품에 드리워진 핵심 주제는 '생명'이다. 원형질과도 같은 유년 시절의 체험은 이후 '바보 예수'와 '생명의 노래' 연작으로 이어진다. 대도시가 주는 불모성, 황폐함을 극복하기 위해 북쪽으로로나마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2004년 광주비엔날레 당시 전시의 한 벽면을 '바보 예수'와 생명 시리즈로 채웠던 건 그 때문이다.

그의 아내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소설가 정미경(54) 씨다. 2006년 '밤이여 나누어라'로 제3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아마 부장부수(夫唱婦隨)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나 보다.

그의 영광은 늘 색채와 이미지로 구체화되고 언어라는 문자로 발현된다. 굳이 어느 영역이 선(先)이고 후(後)인지, 주(主)이며 부(副)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글과 그림은, 그림과 글은 더러는 한데 뒤섞이고 더러는 따로따로 표현된다. 마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탱크'를 자극했을 때, 손서와 무관하게 창조성이 발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 그리고, 쓰고, 묵상할 계획이다. 남들은 이쯤하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는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로 가슴이 고동쳐 온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만큼 가볍다. 올해도 전시회가 계획되고 있고, 책도 계속 낼 참이다.

그의 영광은 늘 색채와 이미지로 구체화되고 언어라는 문자로 발현된다. 굳이 어느 영역이 선(先)이고 후(後)인지, 주(主)이며 부(副)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글과 그림은, 그림과 글은 더러는 한데 뒤섞이고 더러는 따로따로 표현된다. 마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탱크'를 자극했을 때, 손서와 무관하게 창조성이 발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달 말 일본 도쿄의 변화가 롯폰기에 자리한 모리미술관을 찾았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모리미술관은 연간 3000만 명이 찾는 도쿄의 명물 롯폰기 힐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54층 빌딩(모리타워)의 53층에 들어선 입지조건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으로도 불린다. 색다른 입지와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파격적인 발상으로 미술애호가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모기업인 부동산 재벌 모리그룹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로 매년 수십 여점의 작품을 구입한 결과, 현재 280여 점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갖추게 됐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리미술관을 내려오는 내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합전시관이다. 문화전당내 문화창조원의 핵심시설인 이곳은 높이가 16m이고 기둥이 없어 대형 작품을 설치하는 데 최적의 공간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초 미술관으로 설계되지 않은 탓에 상설컬렉션이 없는 데다 공간도 너무 커 스케일이 작은 전시로는 '인팩트'를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리미술관의 교훈

연중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 기획전들은 웅만한 사립미술관은 물론 공립미술관도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리 미술관은 미술관으로서 성공하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를 지녔다. 미술관의 핵심인 컬렉션, 일명 대표작이 없어서다. 루브르 미술관의 '모나리자', 뉴욕현대미술관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관람객들을 불러 모으는 명작을 한 점도 소장하고 있지 않다. 컬렉션이 없다 보니 미술관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모리 미술관은 상설컬렉션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미술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수준높은 기획전으로만 전시장을 채우고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개관 2년 만에 깨달은 것이다. 이에 따라 모기업의 지원으

로 매년 수십 여점의 작품을 구입한 결과, 현재 280여 점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갖추게 됐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리미술관을 내려오는 내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합전시관이다. 문화전당내 문화창조원의 핵심시설인 이곳은 높이가 16m이고 기둥이 없어 대형 작품을 설치하는 데 최적의 공간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초 미술관으로 설계되지 않은 탓에 상설컬렉션이 없는 데다 공간도 너무 커 스케일이 작은 전시로는 '인팩트'를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1년 365일 기획전이나 이벤트로 전시장을 채워야 하는 데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실제로 내년 9월 문화전당 개관전에만 이미 수백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자칫 '돈먹는 하마'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문광부는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문광부 소속이 아닌 특수법인에 맡기는 법안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인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는 법인회는 결을마도 못 얻어 아이에게 '홀로 서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불행하게도 광주엔 아깝없이 퍼주는 모리그룹과 같은 든든한 '빡'도 없다. 문광부는 모리미술관이 컬렉션에 눈을 돌린 이유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건축단체연, 경남 도시재생 투어 참가자 모집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오는 11월10일까지 '2014년 제2회 광주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선진지 투어 장소는 경남 권역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 만들기 대표적 사례인 통영 동피랑 마을, 세계 10개국 유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통영 남방산 조각공원,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

도지역'에 선정된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일대를 차례로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선진지 투어는 건축사 및 소속 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학생 1만5000원, 일반 2만원이며, 중식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화(062-521-0025~6) 또는 메일(gjkira@empal.com)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김병중 작 '환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